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술 강사의 인식

202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해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술 강사의 인식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해 나

# 인 준 서

이해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환경을 알아보고 예술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끼는 교육적 효과와 예술 강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강사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수업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꼼꼼하게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비교적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예술 강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수업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연수가 있지만, 음악 교과만을 위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 강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 연수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예술 강사들만을 위한 연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예술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저렴한 수업료 덕분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넷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학교와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술 강사들은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재계약을 보장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강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요구나 문의에도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돕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음악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수업 장소로 잘 사용하지 않는 교실로 배정을 받고 교실에는 보면대나 책상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더 좋은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이 더 다양한 음악적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이 형성되길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3
4. 용어의 정의 .....	4
가. 방과후학교 .....	4
나. 예술 강사 .....	4
II. 이론적 배경 .....	5
1. 방과후학교의 개념 및 발전 과정 .....	5
가. 방과후학교의 개념 .....	5
나. 방과후학교의 역사 .....	6
1) 방과후학교 도입기 .....	6
2) 방과후학교 발전기 .....	7
3) 방과후학교 확산기 .....	9
4) 현재 방과후학교 .....	11
2.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	12
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체제 .....	12
1) 교육부 .....	13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4
3) 단위학교 .....	15

나.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	16
3.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17
가. 학교 및 학생 참여율 .....	17
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8
다. 프로그램별 강사 구성 .....	21
4. 선행연구 고찰 .....	22
<b>III. 연구 방법 및 절차 .....</b>	<b>27</b>
1. 연구 절차 .....	27
2. 연구 대상 .....	28
3. 연구 도구 .....	29
<b>IV. 연구 결과 및 분석 .....</b>	<b>33</b>
1. 인터뷰 분석 .....	33
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환경 .....	33
1) 수업 운영 방식 .....	33
2)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의 수업 목표 .....	34
3)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을 위한 지원 .....	35
4)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로서 받고 싶은 지원 .....	36
나.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가 느끼는 어려움 .....	37
1)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와 학교와의 계약 .....	37
2)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수업 시간 .....	38
3)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39
4) 학생들 지도의 어려움 .....	40
5)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환경의 문제 .....	42

6) 수업료 책정의 문제 .....	43
7) 지나친 책임감 요구 .....	43
다.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	45
1) 발표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 .....	45
2) 경쟁심을 통한 실력 향상 .....	46
3) 진입 장벽이 낮아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획득 .....	47
4) 합주와 연주회를 하며 배려심 향상 .....	48

**V. 결론 및 제언 .....** 50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Ⅱ-1> 방과후학교의 주요 정책 (2005년-2012년) .....	9
<표Ⅱ-2>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와 참여 학생 수 .....	18
<표Ⅱ-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9
<표Ⅱ-4>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
<표Ⅱ-5>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
<표Ⅱ-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	22
<표Ⅲ-1> 연구 절차 .....	27
<표Ⅲ-2> 연구 대상 .....	28
<표Ⅲ-3>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 인터뷰 문항 .....	29

## 그림 목 차

<그림 II-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 .....	13
<그림 II-2>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서 방과후학교로의 변화 .....	1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대된 사회가 되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난 다양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는<sup>1)</sup> 등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예술 교육 분야에서도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과 학교예술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동아리를 확대하고, 악기교육 관리주체를 학교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sup>2)</sup>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전부터 정규 음악 수업 외에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던 음악 교육으로는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이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sup>3)</sup>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교과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학생들이 최대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더 나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sup>4)</sup>

방과후학교 참여 비용은 참여 학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의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어 사

---

1) 권혁운(2013).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등교사의 참여도 제고 방안. 한국초등교육 24(3). 213-232. p.213.

2) 교육부(2019). 2019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3.

3) 교육부(2019). 2020년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p.3.

4) 교육부(2019). 위의 글. p.3.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sup>5)</sup>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을 보면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연 60만원 내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sup>6)</sup>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98.6%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48.6%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11.4%로 체육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한 학교당 다섯 개 정도로 운영되어 학교당 약 두 개를 운영하는 중학교와 학교당 약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이렇게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술교육의 역할과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감성적 경험을 하고, 자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과 감정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준다. 예술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술을 통하여 끌어낼 수 있는 개인 발전의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할은 예술교육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역할이다.<sup>8)</sup>

이러한 예술 교육이 방과후학교에서도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교사가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른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교사의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

5) 김홍원(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방안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6) 교육부(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p.26.

7) 교육부(2019).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8) 정진원(2017).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음악교육의 방향 탐색. 음악교육연구. 46(4), p153-174.

것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와 외부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외부 강사가 교과 프로그램에서는 88.3%,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는 95.8%를 차지하여<sup>9)</sup> 방과후학교는 현직 교사보다 외부 강사들이 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환경을 알아보고 예술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끼는 교육적 효과와 예술 강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강사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가 느끼는 음악프로그램의 운영 환경은 어떠한가?

둘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가 생각하는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가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9) 교육부(2019).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첫째, 10명의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면담 결과가 전국의 모든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면담 대상자들은 서울과 경기권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로, 전국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의 의견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4. 용어의 정의

##### 가.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sup>10)</sup>이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는 국어와 수학 등 일반 교과가 포함된 교과프로그램과 음악과 미술, 체육 등이 포함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다.

##### 나. 예술 강사

예술 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강사를 뜻한다.

---

10) 교육부(2019). 앞의 글. p.4.

## II. 이론적 배경

### 1. 방과후학교의 개념 및 발전 과정

#### 가. 방과후학교의 개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sup>11)</sup>이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sup>12)</sup> 이전에는 특기·적성 교육, 초등보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불리던 프로그램들이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sup>13)</sup>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서 제시한 위의 개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다.<sup>14)</sup>

둘째,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참여도록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

---

11) 교육부(2019). 앞의 글.

12) 교육부(2019). 앞의 글.

13) 김홍원·양애경·김수동·정영모·김주섭·정종민·유재복·윤준영·양윤이·노상수·채명숙(2016). 방과후 학교 교육개론. 서울: 동문사. p. 15.

14) 김홍원 외(2016). 위의 책. p.15.

여준다.<sup>15)</sup>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자유수강권 제도, 저소득층 자녀수강료 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교과와 특기·적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sup>16)</sup>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돌봄 기능이 더 크게 적용된다.

## 나. 방과후학교의 역사<sup>17)</sup>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의 보호와 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져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사교육 기관에 보낸다. 사교육 기관에서는 늦은 시간까지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의 증가는 공교육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고, 많은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육 기능을 제공하며,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 1) 방과후학교 도입기 (1995년-1999년)

방과후학교는 1995년의 5·13 교육개혁안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5·13 교육개혁안의 목표는 교육공급자 중심이 아닌 교육

---

15)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15.

16)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16.

17) 전도근(2011).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교육과학사. p.10.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하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갖춰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려는 데 있었다.<sup>18)</sup> 하지만 1998년까지 진행된 방과후 교육활동의 양상을 보면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사교육비의 절감의 기능이 보다 강조된 교과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처음의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전개되기도 했다.<sup>19)</sup>

이에 1999년에는 본래의 성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려 개인의 다양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고, 1996년부터 추진해 왔던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으로 바꾸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취미와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sup>20)</sup> 이러한 교육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보충수업식의 교과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방과후학교 발전기 (2005. 2 - 2006)

방과후학교 발전기는 2005년에서 2006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보충 자율학습’이라고 불리던 활동을 ‘방과후학교’로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등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개방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는 학교 교육 기능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하며, 교육복지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지

---

18)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31.

19) 김수동(2014). 방과후학교 정책의 쟁점과 전망. 한국방과후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한국 방과후학교의 쟁점 재조명. p.6.

20) 김수동(2014). 위의 글. p.6.

역 사회화하는 것에 있었다. 2006년에 제시된 안에서는 학교 교육기능 보완이라는 목표가 없었지만, 나중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의 3가지 목표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과 학생의 지덕체 함양과 같은 방과후학교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방과후학교 발전기 정책의 4가지 목표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가 학교의 교육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학교와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업무가 증가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 학습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더 좋다.<sup>22)</sup>

둘째,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는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행연구도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를 한 가지로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 인 문제 등 여러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거시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학교교육기능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학교의 지역사회화가 제대로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문제도 완화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세 번째 목표인 교육복지 실현과 네 번째 목표 학교의 지역사회화는 교육 선진국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목표이다.

### 3) 방과후학교 확산기 (2007. 3 - 2012. 2)

---

21) 김수동(2014). 위의 글. p.6

22) 김수동(2014). 위의 글. p.13

23) 김수동(2014). 위의 글. p.14

방과후학교 확산기는 발전을 거쳐 2007년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기간이다. 정부는 방과후학교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수행해왔다.

방과후학교 확산기에 이루어진 주요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정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II-1> 방과후학교의 주요 정책(2005년-2012년)<sup>24)</sup>

연도	주요 정책 사항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8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 운영</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li> <li>•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학교전담팀」 조직·운영</li> <li>• 280개 시범학교 운영</li> <li>• 중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 지도 허용 초등학교 교과 관련 프로그램 지도 허용</li> <li>•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적 실시</li> <li>•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li> <li>-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사업</li> <li>-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제도 실시</li> <li>-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실시</li> </ul> </li> <li>•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 프로그램</li> <li>-특기·적성 프로그램</li> <li>-초등 보육 프로그램</li> <li>-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li> </ul> </li> <li>•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li> </ul>

24) 임현성, 2014; 배상훈, 2012; 김수동, 2014 재인용). p.15, p.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li> <li>•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실시</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 사회화</li> <li>•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정착과」 운영</li> <li>• 96개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운영</li> <li>•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도입 운영</li> <li>•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li> <li>• 방과후학교 온라인행정시스템 개발</li> <li>• 방과후학교 영어원어민 강사 제도 도입</li> <li>•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센터」 설치</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화</li> <li>•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학교 운영</li> <li>•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실시</li> <li>• 방과후학교 관리자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li> <li>•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교부세를 활용하여 초등보육 교실 운영 지원 재원 마련</li> </ul> </li> <li>•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화(학교자율화 조치): 교과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지도 허용</li> <li>-방과후학교 영리업체 위탁 허용</li> </ul> </li> <li>• 방과후학교 지원 사회복지요원 제도 도입(농어촌 지역에서 지도강사 역할 수행)</li> <li>•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li> <li>• 학생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에 「방과후학교팀」 설치 운영</li> <li>•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채용</li> <li>• 「엄마폼멘토링제」 도입·운영</li> <li>•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형태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li> <li>• 방과후학교 성과를 학교정보공시 항목 및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을 밤 9시까지 돌보는 「종일 돌봄 교실」 시행</li> <li>• 제 1회 「방과후학교대상」 제도 운영</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현화조사 온라인시스템 개발</li> <li>• 10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컨설팅 실시</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에 「방과후학교팀」 설치 운영</li> <li>• 방과후학교 포털 시스템 개발</li> <li>• 24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li> <li>•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컨설팅</li> <li>•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운영</li> <li>• 제3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에 「방과후학교팀」 설치 운영</li> <li>• 방과후학교 포털 시스템 개통(10월)</li> <li>• 35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li> </ul>

#### 4) 현재 방과후 학교 (2013-)

2012년부터 자율적인 형태로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주5일 수업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특기·적성 활동과 체험활동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인성, 창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5일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토요일 방과후학교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지만 정부예산이 중단된 이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sup>25)</sup>

25)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42; 재인용 김수동(2014). 앞의 글.

2014년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내 돌봄 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국정과제(63-4) 초등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를 제시하면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돌봄 대상학생을 위해 저녁 10시까지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한다고 제시하고 있다.<sup>26)</sup>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2015년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sup>27)</sup>

## 2.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 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체제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8)</sup> 또한 방과후학교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지자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은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29)</sup>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체제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Ⅱ-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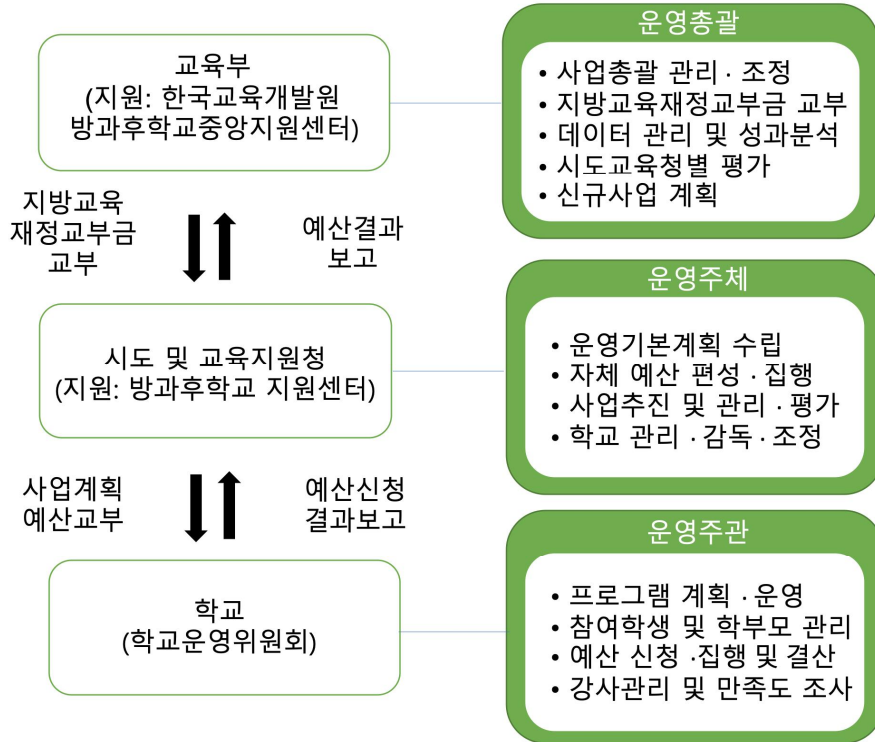
26) 김수동(2015).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7)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42.

28) 나현정(2018).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4(1). 1-17.

29)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167

<그림 II-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sup>30)</sup>



### 1) 교육부<sup>31)</sup>

교육부는 사업총괄 관리 및 조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시도교육청별 평가, 신규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

30)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167.

31)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168.

외에도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비 등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매년 4월에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평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넷째, 특별교부금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시범사업도 종료되지만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sup>32)</sup>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영기본계획 수립, 자체 예산 편성·집행, 사업추진 및 관리·평가, 학교 관리·감독·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방과후학교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도수준의 방과후학교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시도의 여건에 맞게 수립하고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 예산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와 교부금 및

---

32)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p.168-169.

자체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배정되는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비, 초등돌봄교실 지원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예산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셋째,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협력하기도 한다.

### 3) 단위 학교<sup>33)</sup>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를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단위학교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참여 학생 및 학부모 관리, 예산 신청·집행 및 결산, 강사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참여 학생의 출결관리 및 학생 변화, 성과 등에 대해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린다. 알리는 방법은 가정통신문 발송, SNS, 온라인 카페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예산 신청, 집행,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예산은 수익자 부담,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수강료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징수하고 이를 집행, 결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시도교육청에 신청하고 집행한다. 방과후학교 관련 회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회계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

33) 김홍원 외, (2016). 앞의 책. pp.169-170.

넷째, 강사를 선발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강사 선발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하고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나, 위탁운영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 또는 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나.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아래 <그림 II-2>와 같이 변화하였다.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운영 주체는 학교장 중심이었으나 방과후학교에서는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운영 주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 강사도 현직 교원 중심에서 현직 교원과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교육 대상은 본교 재학생 위주에서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교육 장소는 본교 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게 되었다. 프로그램도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림 II-2>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방과후학교로의 변화<sup>34)</sup>

구분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 운영주체	학교장 중심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 주체의 개방성 확대
• 지도강사	현직 교원 중심	현직 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위주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
• 교육장소	본교 시설 위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 보장

위의 그림처럼 방과후학교로 바뀐 이후에 현직교원 외에 외부 강사들이 담당하는 수업 비율이 높아졌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박물관, 도서관, 국민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직업과 역사 문화, 악기연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 3.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가. 학교 및 학생 참여율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포털 시스템의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꾸준히 99% 이상을 유지해왔다.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평

34)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p.2.

균 98.6%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학교 수와 참여 학생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높은 걸 알 수 있다. 운영 학교 수와 참여 학생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와 참여 학생 수<sup>35)</sup>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현황				
					2018	2017	2016	2015	2014
운영학교 수 (교)	6,247	3,118	2,323	11,688	11,746	11,971	11,775	11,740	11,686
비율(%)	99.8	96.2	98.5	98.6	99.2	99.6	99.7	99.9	99.9
참여학생 수 (천명)	1,567	370	711	2,648	2,934	3,371	3,648	4,070	4,469
비율(%)	57.1	28.5	50.5	48.6	52.6	58.9	62.1	66.9	71.2

## 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국어, 수학, 과학 등이 포함된 교과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이 포함된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2019년에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각각 77.5%와 54.0%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이 84.5%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교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

35) 교육부(2019).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하여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특성상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Ⅱ-4>와 같다.

<표Ⅱ-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sup>36)</sup>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현황				
						2018	2017	2016	2015	2014
교과	수(개)	4,468	20,105	83,843	147,416	167,907	210,488	238,916	255,079	294,336
	비율(%)	225	460	845	438	461	500	527	536	547
특기적성	수(개)	150,083	23,500	15,328	188,971	196,192	210,487	214,475	220,611	243,712
	비율(%)	77.5	540	155	562	539	500	473	464	453
합계		193,551	43,655	99,171	336,387	364,099	420,975	453,391	475,690	538,108

프로그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인 체육 수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음악 수업이 높은 비율로 운영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프로그램인 수학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국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두 과목 모두 매년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더 자세히 보면 <표Ⅱ-5>, <표Ⅱ-6>과 같다.

36) 교육부(2019). 앞의 글. p.1.

<표Ⅱ-4>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sup>37)</sup>

구분		교과프로그램						
		국어 관련	수학 관련	사회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제2 외국어	기타
프로 그램 수 (개)	초	2,126	11,336	1,469	11,477	12,643	2,758	1,659
	중	2,943	5,242	2,014	2,594	5,317	1,027	968
	고	16,329	18,007	12,348	14,324	15,497	990	6,348
	계	21,398	34,585	15,831	28,395	33,457	4,775	8,975
비율(%)		6.4	10.3	4.7	8.4	9.9	1.4	2.7
과년 도 비율 (%)	2018	6.9	11.1	4.9	8.6	10.4	1.4	2.8
	2017	7.6	11.9	5.2	8.6	12.9	1.4	2.6
	2016	8.4	12.6	6.1	8.8	13.2	1.2	2.5
	2015	8.6	12.8	6.1	8.5	13.8	1.2	2.6
	2014	9.4	14.1	6.5	9.0	14.6	1.2	
	2013	10.2	14.5	7.0	9.2	14.7	1.0	
	2012	11.0	15.7	7.2	10.1	15.7	1.2	

\*특성화고 교과과목의 경우, 기존 교과프로그램 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15년부터 '기타' 항목 추가

<표Ⅱ-5>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sup>38)</sup>

구분		특기적성프로그램						계 (교과+ 특기적 성)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체육 관련	컴퓨터 관련	독서 논술 관련	기타	
프로 그램 수 (개)	초	29,145	21,662	31,360	23,399	5,134	39,393	193,551
	중	7,000	2,210	8,887	1,390	563	3,510	43,665
	고	2,311	1,605	4,482	1,684	945	4,301	99,171
	계	38,446	25,477	44,729	26,473	6,642	47,204	336,387

37) 교육부(2019). 앞의 글. p.1.

비율(%)		11.4	7.6	13.3	7.9	2.0	14.0	100
과 년 도 비 율 (%)	2018	11.1	7.3	12.8	7.2	1.9	13.5	100
	2017	10.6	6.4	12.3	6.1	2.0	12.6	100
	2016	10.0	6.1	11.8	5.5	2.1	12.0	100
	2015	9.5	5.9	12.2	5.3	2.2	11.2	100
	2014	8.9	5.7	12.0	5.2	2.5	11.0	100
	2013	11.1	8.2	5.5	5.0	2.8	10.7	100
	2012	6.9	5.0	9.6	5.2	2.8	9.5	100

#### 다. 프로그램별 강사 구성

방과후학교는 현직 교원과 외부 강사가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교과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현직 교원의 참여가 70%대를 차지하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강사의 참여가 70%대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과 프로그램에서는 현직 교원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강사의 수업 비율이 높지만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외부 강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초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모두 외부강사가 각각 88.3%와 95.8%를 차지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38) 교육부(2019). 앞의 글. p.1.

<표 II -6>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sup>39)</sup>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8	2017	2016	2015	2014	
교과 프로 그램	현직교원 (A)	2,541	11,671	45,483	59,695	70,979	83,006	94,449	98,984	11,631
	(A/(A+B))	11.7%	79.4%	96.3%	71.4%	73.8%	74.8%	76.9%	78.1%	78.8%
	외부강사 (B)	19,136	3,029	1,770	23,935	25,152	27,983	28,332	27,735	30,270
	(B/(A+B))	88.3%	20.6%	3.7%	28.6%	26.2%	25.2%	23.1%	21.9%	21.2%
특기 적성 프로 그램	현직교원 (C)	3,341	9,472	8,482	21,295	25,139	31,206	34,028	38,621	51,129
	(C/(C+D))	4.2%	44.6%	67.4%	18.7%	21.1%	24.4%	25.7%	28.7%	34.1%
	외부강사 (D)	76,984	11,744	4,097	92,825	94,136	96,583	98,468	95,892	98,668
	(D/(C+D))	95.8%	55.4%	32.6%	81.4%	78.9%	75.6%	74.3%	71.3%	65.9%

#### 4. 선행연구 고찰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를 한 김윤화<sup>40)</sup>는 음악 프로그램이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프로그램 관리 교사와 강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교사는 음악 프로그램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강사는 책임감 있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식에 따른 음악프로그램

39) 교육부(2019). 앞의 글. p.2.

40) 김윤화(2018).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을 실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와 강사들로, 관리교사들과 외부 강사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관리교사와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과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방과후 음악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관리교사는 강사들에게 교실을 양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일반 교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프로그램 수강 인원이 많아 높은 질 높은 수업이 어렵고 수강료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낮은 급여로 최선의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재정 문제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방과후학교 음악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박은영, 김현, 김지현<sup>41)</sup>은 방과후학교 방과후 음악교사가 비교원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했다.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방과후학교 음악교사들은 자신과 학생의 인성에 관한 문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 지도안 작성 문제, 교재 선정 및 자료 제작에 대한 문제, 정체성과 교직 문화 이해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인성과 전공 분야 관련 교사 교육 및 연수와 동료 교사 멘토링 등을 통해 음악교사의 인성을 함양하고 교수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지도안이나 계획안 작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연령과 학생 수준에 따

---

41) 박은영, 김현, 김지현(2012). 방과후학교 음악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음악교육연구 (41-3), p. 157-179.

른 교재와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며 방과후학교 음악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 참여 강사의 인식조사를 한 홍승연<sup>42)</sup>은 연구를 통해 강사들의 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음악교육적 측면, 정규 음악수업과의 연계성 측면, 음악성과 창의성 기여 측면 등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현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 프로그램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 응답자 전원이 과정별 학습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76.2%가 방과후 음악 프로그램이 보조적 수단이 아닌 독립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73.8%가 정규 음악수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응답자의 92.9%가 방과후 음악 프로그램 강사와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모두 방과후 음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담당 음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약 97%와 약 85%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홍승연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과 정규 음악과 교육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연구와 방과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강사에게 제시하고 음악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수방법 등을 안내해줄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그리고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음악성과 창의성이 신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음악 특기적성 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를 한 김일영<sup>43)</sup>은 방과후학교 운

---

42) 홍승연(2015).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 참여 강사의 인식조사. 음악교육공학(25), p. 1-17.

43) 김일영(2013). 음악 특기적성 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2), p. 307-328.

영 실태와 2012년에 운영되었던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개선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 75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악실과 연습실을 마련하고, 방음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전문 예술 강사를 섭외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 예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방법과 학생이해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악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해야 하고, 음악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울시 중학교 토요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와 만족도 조사 연구를 한 조경선<sup>44)</sup>은 연구를 통해 토요일 방과후수업의 안정적 정착화를 위한 운영 방안과 음악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음악프로그램의 실태는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는 서울의 중학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중학교 378개교 중 평일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239개교, 토요일에 운영하는 학교는 248개교가 있었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의 강사 채용은 외부강사 채용율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학생들에게 토요일 방과후학교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7.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설되기 희망하는 음악프로그램은 대중음악과 대중가요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음악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시설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

44) 조경선(2013). 서울시 중학교 토요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와 만족도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경선은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방과후학교 전용교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학교 기자재의 원활한 활용과 외부강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음악 관련 방과후학교 선행 연구들은 설문지를 통한 운영 실태 조사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끼는 교육적 효과와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예술 강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준비, 개발, 실행, 정리 네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년 11월부터는 인터뷰 대상 교사를 섭외하였으며, 12월까지 인터뷰지를 제작하였다. 2019년 9월부터 <표Ⅲ-1>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표Ⅲ-1> 연구 절차

연구 단계	연구 기간	연구 내용
준비	2019년 9월 - 11월	-연구 주제 선정 -문헌 연구 -선행 연구 고찰
개발	2019년 11월	-인터뷰 대상 교사 섭외 -서론 작성
	2019년 11월 - 12월	-인터뷰지 제작 -인터뷰지 수정 및 보완
실행	2019년 1월 - 2월	-교사 인터뷰 진행 -인터뷰 내용 정리

정리	2019년 3월 - 5월	-인터뷰 내용 결과 분석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작성 -전체적인 내용 수정과 보완 -보고서 작성
----	---------------	---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권에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표Ⅲ-2>과 같다.

<표Ⅲ-2> 연구 대상

교사	지역	경력	전공	나이	성별
A교사	서울	11년차	바이올린	36	여
B교사	서울	7년차	바이올린	33	여
C교사	경기도	15년차	바이올린	40	여
D교사	서울	2년차	바이올린	28	여
E교사	서울	35년차	비올라	60	여
F교사	서울	26년차	바이올린	53	여
G교사	서울	27년차	바이올린	60	여
H교사	서울	4년차	비올라	28	여

I교사	경기도	4년차	바이올린	29	여
J교사	서울	13년차	바이올린	37	여

### 3. 연구 도구

이 연구의 인터뷰지는 박은영, 김현, 김지현(2012)<sup>45)</sup>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고, 현직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 3인과 음악교육 전공 교수 1인의 조언을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박은영, 김현, 김지현의 인터뷰지 질문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9개 문항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9개 문항은 더 여러 질문으로 구성하고 현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 3인의 조언을 받아 추가 질문을 구성하였다.

#### <표Ⅲ-3>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 인터뷰 문항

연구대상 강사들의 일반적 사항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교사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li> <li>• 현재 학교의 강의는 어떻게 맡게 되었는가?</li> <li>• 다른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는가?</li> <li>• 나가고 있다면 총 몇 개 학교에 나가고 있는가?</li> <li>• 담당하는 학생들의 학년은 어떻게 되는가?</li> </ul>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느끼는 보람

45) 박은영, 김현, 김지현(2012). 방과후학교 음악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음악교육연구 41(3). pp.157~179.

-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기는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 진행 방식

- 한 수업 당 학생 수는 몇 명인가?
-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
- 현재 맡고 있는 수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였는가?
- 현재 맡고 있는 수업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 수업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ex. 1:1, 1:n)
-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친구관계나 자신감 생기는 것 등

-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가 교육청에서 제시한 목적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

육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 ②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
- ③ 방과후학교로 인해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완화된다고 생각하는가?
- ④ 방과후학교로 인해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생각하는가?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느끼는 어려움

- 방과후학교 강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 ① 계약적인 면에서의 어려움
  - ② 학교 행정실 직원분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 ③ 교장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교육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며 학교에서의 지원이나 학교 환경적인 면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는가?
- 위의 질문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 가장 힘들었던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의 자격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더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직을 위해 개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며 배우는 것이 있는가?
- 있다면 비용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강사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이 있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 강사로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가?

#### 수업료에 대한 만족도

- 
- 현재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되는가?
  - 보통 학교에서 시간당 페이는 어떻게 되는가?
  - 현재 출강하는 학교가 두 군데 이상이라면, 각 학교에서 수업료에 차이가 있는가?
  - 수업시간 대비 수업료에 만족하는가?
  -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

방과후학교 음악교육의 효과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 음악 교육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방과후학교 음악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인터뷰 분석

#### 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환경

##### 1) 수업 운영 방식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은 보통 6명에서 20명 사이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음악 교과 특성상 대부분의 예술 강사들은 시간을 나눠 1:1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배우고 온 학생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음악을 처음 접한 학생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술 강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지도한 후, 수업 마지막에 같이 연주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개개인 한 명씩 진도가 달라서 잘하면 넘어가고 안 되면 계속 연습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학생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 레슨이어서 자세히는 못 봐주고 조금씩 한사람 당 5-10분씩 봐줘요. (H 교사)

10명을 한 명당 3분을 봐주더라도 1:1로 해주고 있어요. 합주는 공개 수업 때만 하고요. 아니면 평소에는 개별 진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하는 곡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고 느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진도가 다르게 되더라고요. (J 교사)

1:1로 봐주고 다 같이 해보는 식으로 해요. 같이 하기엔 각자 실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다 같이 연주를

해봐요. (B 교사)

## 2)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의 수업 목표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의 목표로 연주 실력 향상보다는 올바르게 음악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과 기본기를 잘 잡아놓는 것을 꼽았다. 강사들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에 비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참여 부담감이 적고, 수업 시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주 실력의 큰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예술 강사들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도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큰 무리가 없도록 기본을 잘 다져놓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단 수업 자체가 개인 레슨이 아니고 길게 하는 게 아니니까 깊이는 못 가지만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흥미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는 게 제일 목표고 두 번째로는 많은 거를 줄 수는 없어도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갈 수 있게 기본기를 다져놓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흥미와 기본기 이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A 강사)

방과후니까 아무래도 전공하는 애들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기본기를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H 강사)

아이들이 연주를 해서 본인이 악기를 즐기고 어디서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J 강사)

### 3)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을 위한 지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을 위한 강의나 연수에 참여한 강사와 이러한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예술 강사들이 각각 5명으로 반씩 차지했다. 강의나 연수에 참여했다고 답한 강사들은 수업 지도안 작성법과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음악대학 졸업 후 바로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 작성법에 관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사들은 연수가 음악 교과만을 위한 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음악 교과에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강좌를 전체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이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획서 쓰는 것에 대한 강좌를 10개 넘게 들었어야 됐어요. (중략) 그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제대로 된 방과후 선생님이긴 한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그걸 들은 이후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에 응용할 수 있는 티칭법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강사)*

*예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사 심화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교수법을 배웠어요. 지안 작성하는 법이랑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웠어요. 연수 때는 전체적인 교수 지도안에 대한 걸 배웠는데 실제적인 과목으로 가면 사실 바이올린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개별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교수 지도안으로 맞는구나, 개별 과목으로 가면 적용하기 힘든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맞춰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과후학교 선생님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목별로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J 강사)*

#### 4)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로서 받고 싶은 지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교수법 강의와 현직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의 강의를 꼽았다.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교사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강사들이 많았고, 교수법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전에 받았던 강사 연수는 음악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연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음악 분야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주거나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이 모여서 예술 강사들끼리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방과후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학교 내에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가면 좋는데 선생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방향성을 통일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A 교사)

애들 케어하는 방법이나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티칭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D 강사)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의 스킬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올린이 라면 바이올린 선생님이 애들을 진짜 잘 가르치는 요령 같은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걸 배울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의 경력 많은 선생님이 애들을 잘 지도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J 강사)

## 나.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가 느끼는 어려움

### 1)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와 학교와의 계약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짧은 계약 기간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 학교에서 20년-3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6개월이나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선생님이 면접을 다시 보더라도 재고용이 되지 않는 사례들을 보며 강사직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예술 강사들은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을 보장해준다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계약적인 것에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니까 그건 좀 별로였어요. 계약이 다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엔 매번 공고가 다시 나가서. 지금 제가 나가는 학교는 아예 서류도 다시 내고 면접도 다시 보고 해도 서류에서 탈락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되게 크죠.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재고용이 될 거라는 걸 보장을 해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A 강사)

아무래도 2년마다 면접을 봐야 되니까 부담이 커요. 2년 후엔 언제든지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소속감도 안 생겨요. 그리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이 뭔가 경력이 더 많거나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선생님 교체가 가능해요. 그런 점에서는 힘들어요. (J 강사)

제가 시간 강사라고 해도 한 학교에서 30년을 넘게 복직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장이 없어서 정교사의 정년 보장 이런 상황이 부러워요. 아이들과 행복하고 보람되게 보낸 시간은 아깝지 않지만 이미 지나버린 시간은 찾을 수 없고 노후가 걱정인 점이 계약

직의 서러움인 것 같아요. (E 강사)

## 2)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수업 시간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들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수업 시간은 40분에서 60분으로 다양했고, 수업 당 학생 수는 6명에서 20명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학생 한 사람당 개인 지도가 필요한 음악 수업 특성상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는 수업 시간 내에 7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을 세세하게 지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한 수업 당 최대한 많은 학생을 받기 원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학생 개개인을 봐줄 수 있는 시간과 수업 외적인 면에서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목적 중 하나인 ‘교육 격차 해소’는 사실상 이루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비해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한 수업 당 학생 수를 제한하고 정확한 인원수를 정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간당 들어오는 인원을 주는 게 수업 질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한 학생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그걸 완벽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40분이고 레슨은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주어진 시간 내에 수업도 하고 아이들 지도도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A 강사)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똑똑한 애들은 빨리 배우잖아요. 근데 좀 하기 싫어하고 별로 참여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애들은 빨리 안

늘죠. 그래서 더 봐주고 싶은데 한 명만 더 봐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D 강사)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시간이나 인원수가 짜여있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0분에 10명을 봐주라는 곳도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해놓는 게 별로예요. 그런데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C 강사)

방과후를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여러 사례를 보면 돈이 적어서 아니면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아니면 이 많은 애들을 꼼꼼하게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포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략)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학예회에서 엄마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I 강사)

### 3)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을 진행하며 강사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무리한 요구와 문의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예술 강사들에게 사교육을 받고 있는 다른 악기에 비해 진도가 느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 중간에 연락을 하여 학생이 학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내보내달라는 요구, 결석한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해달라는 문의, 발표회 때 학생들의 자리 배치 등에 대한 항의 전화 등이 있었다. 이에 예술 강사들은 추후에 학교로 불만이 접수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을 1년 반을 공들여 가르쳤는데 피아노 학원에서는 랫잇고를 치는데 왜 바이올린은 나비야를 연주하냐는 분이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하는 전화가 힘들 때가 많아요. 수업하기 전에 상담 전화가 와서 제애가 방과후 수업만으로도 잘하게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들어오기 전부터 기대

를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전 그냥 개인 레슨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I 강사)

가끔 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번 방학 동안에 본인이 세 번을 빠지는데 그만큼 환불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건 제가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월급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게 환불이 가능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환불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왜 이번엔 환불이 되면서 왜 저번에 빠진 세 번 거는 환불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말이 안 통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을의 자세로 대하긴 하는데 좀 힘들죠. 강하게 나가면 학교에서 민원 사유가 돼서 선생님이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J 강사)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로 생각하는데 방과후학교 선생님은 약간 학원 선생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석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고 그런 면이 조금 섭섭해요. (중략) 학원 시간 때문에 수업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략) 방과후는 취미로 대충이라는 느낌으로 주요 과목 학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G 강사)

보통 학원은 한 번만 빠졌다고 돈을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달에 삼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애가 한 번 빠졌는데 그만큼 환불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들이랑 이런 비슷한 일이 많긴 해요. 별일이 아닌 걸로 전화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은 걸 후회하기도 해요. (H 강사)

#### 4) 학생들 지도의 어려움

예술 강사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 있어 주의를 주더라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학생 지도를 할 경우에는 학교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생겨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가르치는 걸 잘 안 따라올 때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아니면 제가 가르쳤을 때 잘 이해를 못해도 자존심이 안상하게끔 가르쳐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뭐라고 혼내면 눈을 아래위로 훑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하지만 훈계를 해도 '해보려면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학년들은 그렇지 않은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더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F 강사)

학생 관계는 항상 예민한 것 같아요. 맘 놓고 있으면 항상 무슨 일이 터져요. 항상 그래서 애들 하는 행동에 예민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버릇없이 굴 때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끼리의 싸움을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랑 얘기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항상 어렵죠. 왜냐면 방과후 선생님은 사실은 학교에서 힘이 별로 없으니까요. (I 강사)

사춘기 온 애들은 좀 힘들어요. 말대꾸를 좀 많이 하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귀엽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많은데 4-5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다 알잖아요. 사춘기 오면 좀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경우는 좀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체벌도 안 된다고 하고. (D 강사)

## 5)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환경의 문제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한 문제점은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 대한 문제였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들은 방과후학교만을 위한 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음악 수업임에도 체육실이나 과학실 등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에는 음악 수업을 위한 보면대나 책상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예술 강사가 학교 측에 물품 요청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잘 취해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A초등학교는 아예 실기동이 따로 있어서 레슨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데 B초등학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교실을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책상, 보면대가 없고 독서대를 놓고 하니까 그런 게 불편해서 공간이 따로 있거나 보면대라도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A 강사)*

*교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을 안 하는 교실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음악실이 아니라 급식실에서도 수업을 해요. 이게 급식실인지 강당인지 모를 정도로... 음식도 있고.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했던 적도 있어요. (H 강사)*

*방과후 교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일반 교실을 빌려서 쓰는데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 교실을 배정받았을 때는 그런 점이 어렵고, 과학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음악 수업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보면대나 피아노 같은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바이올린 케이스 열어놓고 그걸 보면대 삼아서 하는 곳도 있어요. (C 강사)*

## 6) 수업료 책정의 문제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수업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교마다 수업 시간과 수업료에 차이가 있었다. 강사 한 명이 학교 두 군데 이상을 나간 경우는 각 학교의 수업 시간과 수업료를 따로 정리하였다.

시간당 수업료를 책정하는 학교와 인원수에 따라 수업료를 책정하는 학교가 있었다. 인원수에 따라 수업료를 받는 강사들은 신청 인원에 따라 급여 차이가 커져 한 학기 급여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힘들다고 했고, 특히 방학 때는 신청하는 학생 수가 학기 중에 비해 많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줄어드는 점이 힘들다고 했다.

인원으로 할 때는 인원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만약에 방학에 방과후를 하면 애들이 많이 줄어요. 그럼 시기상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 인원수대로 말고 시간당으로 책정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는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인당으로 받으면 너무 적어져요. 그럼 선생님들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늠이 안 되니까 차라리 횡수로 해서 정액제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C 강사)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급여가 똑같대요.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급여는 안 오르는지... 십년 전이랑 페이가 똑같으니까 적어도 만원 2만원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H 강사)

## 7) 지나친 책임감 요구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관련하여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교실 밖

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하는 점을 어려워했다.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경우가 많아 강사들은 레슨을 하는 중에도 다른 학생들이 강사의 눈 밖에 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했다. 또한 일부 강사는 수업 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들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일부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교실을 직접 청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추가 근무를 하는 날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급여는 지불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과의 의견 불일치가 생길 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집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아이들과 학부모 말만 듣고 제 잘못이라고 했을 때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같은 선생님 입장에서 무조건 학부모님이나 아이들 편만 들어줄 때는 부당함을 느껴요. 책임을 조금 떠넘기는 느낌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계약 문제랑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잘린다고 해도 어쨌든 저보다 유능한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불안함과 부담감이 느껴져요. 계약을 짧게 하니까요. (C 강사)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교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때 더 확실하게 학교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약자라는 게 확실히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제 수업시간에 뭔가 잘못됐을 때나 사고가 났을 때 정교사에 비해 타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정교사들은 경비아저씨들도 있고 그런 시간에 수업을 한다면 저희는 경비 아저씨들도 퇴근하는 시간이나 방학 중에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문자가 와요. 수업 중에 일어나는 아이들의 사고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와요. (중략) 그런 사고 나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책임을 너무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고에 관한 건 아마 방과후 선생님들이 다 예민할 거예요. (I 강사)

선생님이랑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 전에 애들보다

10분 2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제가 계약한 시간은 2시란 말이  
예요. (중략) 하지만 그 사이에 애들한테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약한 시간은 두 신데 제가 두 시에 가도 애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라  
고 해요. 제가 만약에 10분만 빨리 와야 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애들  
보다 일찍 와달라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중략)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애  
기를 하면 되는데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런 것도 제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힘  
들어요. 담임 선생님께 그 시간까지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과  
권리가 없어요.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요구할 수 없는 거엔 다 익숙해져서 그  
냥 다들 일찍 가서 있어요. 저도 혹시 정각에 도착할 때도 늦은 게 아닌데도 엄청 불  
안하고 컴플레인 들어올까 봐 스트레스 받아요. (G 강사)

청소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중략) 애들도 오면 책상이 너무 더럽다고 하고 학부모  
님들도 오셔서 보면 교실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중략) 저학년 아이들  
이 교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청소까지 하려면 1시간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문자가 와요. 교장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봤는데 청소를  
안 해서 너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단  
체 채팅방에 와요. (중략) 저는 청소 하러 간 사람이 아니고 수업 하러 간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서 대걸레질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중략) 아예  
방과후학교 교사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본인 담당 교실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  
어요.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B 강사)

## 다.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 1) 발표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

방과후학교 예술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학생  
들이 연주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많

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학생들도 연주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발표 공포증도 극복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배운 악기로 1년에 한 번 무대에서 연주할 때 제일 재미있어 해요. 이 때 애들이 연주하며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연주가 끝나고 다시 교실에 모여 수업할 때 아이들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큰 기쁨이에요. 처음 배울 때는 힘들어 했어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도 즐기면서 뿌듯해하는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로 성장해 있어요. (E 강사)

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의 만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아서 서울의 대부분 학교 아이들이랑은 달라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를 배워보라고 바이올린 수업을 넣어줬는데 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등굣길에 아이들이 연주하는 등굣길 음악회 활동을 하거든요. (C 강사)

자신감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 1학년 남자애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연습할 때 나와서 레슨을 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공개 수업할 때 눈을 질끈 감고 그냥 그렇게 서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아이가 이 부분에서는 발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시키셨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누나들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I 강사)

## 2) 경쟁심을 통한 실력 향상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의 장점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선의의 경쟁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 레

슨이나 학원에서는 대부분 1: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볼 기회가 비교적 부족한 반면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스스로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바이올린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은 경쟁심 같은 게 생겨요. 내 또래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방과후학교에서 수업 듣는 애들이 연습을 더 많이 해요. 개인 레슨은 비교 대상이 아예 없으니까 자기가 잘해도 잘하는지 모르고 못해도 못하는지 몰라요. (중략) 학부모님 중에서도 더딘 친구들이 방과후에 오면 내 아이가 좀 더디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I 강사)*

*연주할 때 좋아해요. 생각보다 애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실력을 뽐내고 애들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남한테 인정받을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일수록 보여주고 싶어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해요. 서로 경쟁심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J 강사)*

*선의를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한번씩 수업 중간에 앞에 나와서 연주도 시켜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애들이 연습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안하던 애들도 시킨다고 하면 하더라고요.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켜요. (D 강사)*

### 3) 진입 장벽이 낮아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획득

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수업료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관심 있는 수업들을 부담 없이 듣고, 학생 본인 적성에 맞는 악기나 진로를 찾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을 전공을 결정하거나 꾸준한 아마추어 음악가 활동을 하며 취미 생활로 이어가기도 했다.

음악, 미술, 체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처음 접한 아이들 중에는 전공까지 하게 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여러 과목 중에 학생들은 적성에 맞게 선택하고 있고, 6년 동안인 만큼 자기와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했다면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해요. (F 강사)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본인들도 느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놀라워요. 그리고 만약에 학부모가 아이를 전공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아이가 긴가민가할 때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음악을 개인레슨으로 먼저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저렴한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먼저 경험을 시켜보려는 학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하다가 그만둬도 아깝지 않아서요. (I 강사)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이 동영상 보내왔어요. 교내 오케스트라 입단 오디션에 응시 할 곡을 연습 할 때 찍어서 “선생님한테 배운대로 연습했는데“ 잘했어요? 라면서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영상을 봤는데 물론 잘했고, 파트장으로 합격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훌륭한 제자를 뒀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죠. (E 강사)

#### 4) 합주와 연주회를 하며 배려심 향상

학생들이 합주를 통해서 기다림과 배려를 배운다는 것은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예술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학생들은 같이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 부족한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의 있게 친구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태도도 배우게 됐다. 예술 강사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고 답했다.

같이 합주도 해보고 제가 혼자만 시키진 않거든요. 두 명 이상씩 짝지어서 해줘요.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박자 생각 안하고 혼자 막 하는데 다같이 하면 좀 기다려주고 인내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악 외적인 면에서도요. (H 강사)

합주를 통해서 서로를 더 신경 쓰고 배려하는 마음은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F 강사)

합주를 통해 아이들이 기다려야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수준이 낮지만 언젠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저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너는 정말 음정 듣는 귀는 없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잘할 수 있어. 넌 그래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또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요. (G 강사)

저는 음악 속에서 예절을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주할 때도 애들이 제일 버릇없을 때가 재가 저보다 잘 못하는데 왜 제가 재랑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길 해요. 근데 조금만 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애들이 자아가 확실하게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의 본연의 성질이 어떻든 간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는 네가 못하는 걸 재가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하면 배려하는 걸 생각보다 많이 배워요. (I 강사)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끼는 교육적 효과와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예술 강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강사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은 학생 인원수는 수업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한 사립 초등학교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강사들은 음악 교과 특성상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있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도를 한 후 합주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의 장점 중 하나로 꼽았다.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선의의 경쟁심이 생겨 실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1:1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원이나 개인 레슨과 달리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서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혼자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여러 명이서 하는 수업이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에는 질적인 면에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수업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에서는 2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더 꼼꼼하게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력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기보다 추후에 음악을 전공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음악을 평생의 취미 생활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도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과목별 강사들과 논의한 후 수업에 적절한 인원을 정하여 수업이 운영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연수가 있지만, 인터뷰 대상 10명 중 5명이 강의에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강사들에 따르면 수업계획서 작성법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음악 교과만을 위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예술 강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 연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강의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과후학교 음악 교육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비해 수업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음악 수업을 듣다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서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많았다.

넷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는 학교와의 계약에 있어서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에 예술 강사들은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재계약을 보장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예술 강사들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강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요구나 문의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돕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러 번 문의하는 내용들을 파악하여 학부모들에게 일괄적으로 공지를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예술 강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방과후학교 음악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 방과후학교만을 위한 교실을 마련해주는 학교는 사립 초등학교 한 곳 뿐이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잘 사용하지 않는 남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강사들에게 직접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교실에는 보면대나 책상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음악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학교에서는 음악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구비해두고, 강사와 학생들이 더 쾌적한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장소를 확보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심층 면담으로 진행되었지만 10명의 강사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 많은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을 통해 다양한 답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강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이 더 다양한 음악적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형성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9). 2019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 교육부(2019).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교육부(2019). 2020년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교육부(202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권혁운(2013).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등교사의 참여도 제고 방안”. **한국초등교육**, 24(3). 229-248.
- 김수동(2014). “방과후학교 정책의 쟁점과 전망”. 한국방과후학회 2014년 추계 학술대회: 한국방과후학교의 쟁점 재조명.
- 김수동(2015).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윤화(2018).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일영(2013). “음악 특기적성 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1). 307-328.
- 김홍원(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방안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양애경·김수동·정영모·김주섭·정종민·유재복·윤준영·양윤이·노상수·채명숙(2016). **방과후학교 교육개론**. 서울: 동문사.
- 나현정(2018).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4(1). 1-17.
- 박은영, 김현, 김지현(2012). “방과후학교 음악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음악교육연구**, 41(3). 157-179.

- 전도근(2011).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 정진원(2017).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음악교육의 방향 탐색”. **음악교육연구**, 46(4). 153-174.
- 조경선(2013). 서울시 중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와 만족도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승연(2015).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 프로그램 참여 강사의 인식조사”. **음악교육공학**, 25. 1-17.

# ABSTRACT

## After-school music program Art Instructors' Perception of Operations

Lee, Hae Na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research is designed to examine the educational effects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art instructors at elementary schools while operating program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rt instructors, to improve the teaching environment, and to explore ways to provide students with more diverse musical experiences.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e interview, which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10 music instructors in after-school classes.

First of all, art instructors in after-school classes felt it was difficult to teach students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time. The school wanted to have a larg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classes, but they felt that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students, they could not keep a close watch on the students. Also, they felt that they would have to suffer from a lack of quality in the classes. Art instructors said it would be effective

to limit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lasses.

Second,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training courses for after-school classroom instructors, but they are not only for music subjects. In other words, there is not much support for music instructor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was suggested that training for instructors would be divided into smaller sections, and that training for only music instructors would be necessary.

Third, art instructors said that students often develop their talents and aptitudes because of the cheaper tuition for after-school music programs. As students casually participate in classes, they have more opportunities to find their own talent and aptitude.

Fourth, art instructors in after-school classes felt uneasy about the too short contract terms for school contracts. Art instructors said it would be helpful to extend the contract period or guarantee a new contract in order to give students a sense of belonging to the school.

Fifth, art instructors in after-school classes were in trouble because of the parents' unreasonable demands. Schools have not actively helped solving problems despite requests and inquiries from parents, which are difficult to solve as outside instructors.

Sixth, art instructors at after-school schools felt a shortage in the classroom environment where music classes were held. Many schools were assigned to classrooms that were not often used as places of study and did not even have music tables or desks. The environment need to be improved for better after-school music classes.

Based on these results, I hope that after-school work conditions for art instructors will be improved an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experience a variety of musical activities and experiences.